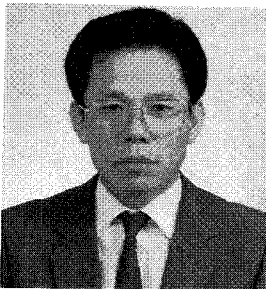


살아남기 위한酪農戰略



유 우 개 량 팀
차 장 任 炳 淳

우리의酪農產業에서 꽃피는 춘삼월은 이제 아득한, 기억만으로 남게된 오늘이 되고 말았다. 아울러 UR, WTO 등 우리를 괴롭혔던 일들도 먼 옛날 얘기가 되었다.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시대를 맞게 된 오늘날, 과거의 UR, WTO등은 그래도 양반이었다. 누구의 잘못으로 나라가 부도가 났으며, 經濟植民國家가 되었는지 등 잘, 잘못을 따지고 말고 할때가 아니다. 이러한 문제는 법치국가인 만큼 법에서 다스릴 문제고, 우리는 어떻게하면 우리의 생업인酪農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심도있게 검토하고, 연구하여 파고를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하리라 본다. 따라서, 여기에서 우리 낙농가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찾아 보고자 하여, 이 글을 써본다.

[酪農展望]

1) 젓소 가격 :

- 암송아지 가격 : 현재 수준 내지 약보합 전망
- 수송아지 및 노페우 가격 : 다소 떨어질 전망

2) 사육두수 :

- '97년 550,000두⇒2000년 600,000두

3) 사육호수 :

- '97년 9월 18,000호⇒2000년 8,000호 내외

4) 유제품 자립도 :

- '97년 70%⇒2000년 73%

5) 낙농진흥법 발효 :

- 시기 : 1999년 1월 1일부터

6) 생존전략 : 가족노동중심 낙농

- 양질의 원유 생산
- 자금조사료 확보

7) 젖소개량 :

- 혈통등록, 심사, 산유능력검정 ⇒ 계획교배

가. 젖소가격

(1) 암송아지 가격 : WTO체제하에서 소고기 및 유제품수입의 전면 자유화 덕분(?)에 모든 젖소가격이 낙농강의 오리알 신세가 되었다. 혹여 어느 농가는 언젠가 한번쯤은 가격회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미련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하지만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서 현실을 직시하여야 하겠다. 더이상의 송아지 가격 회복은 없다. 전망해 보면, 현재가격보다 다소 떨어지든지 현수준을 유지하는 선에서 암송아지가격은 형성되리라 본다. 단, 혈통이 확실하게 확립(血統登錄牛)되고, 예상능력이 확실(어미 : 產乳能力 檢定牛)한 송아지는 몇배 비싼가격으로 그 희귀성과 신뢰도를 인정받아 매매되리라 본다.

(2) 수송아지 및 노폐우 가격 : 수송아지나 노폐우의 가격전망은 위의 암송아지 가격전망보다 더욱 어둡다. 高飼料價 체제하에서는 더욱 그렇다. 한가지 희망은 있다. 소비패턴이 달라져 등급관정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즉, 마

블링이 잘된 고기는 고가의 경락으로 생산자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외에는 거의 어렵기 때문이다.

나. 사육두수

(1) 현재 : 1997년 9월말 현재 우리나라 젖소 사육두수는 약550,000두다. 이중 착유우는 약 310,000두로써 약 56.4%를 차지하고 있다. 성우와 후보우의 비율이 50 : 50을 이상적으로 볼때 후보축이 약간 부족한 실정이다.

(2) 전망 : 앞으로 2년후인 2000년에는 전체두수가 약 600,000두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두수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單位生産量이 문제인 것이다. 즉, 1일 납유량이 1Ton으로 가정하고 착유두수가 50두나, 30두나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정예화된 우군으로 낙농을 영위하지 않으면 인건비, 사료비, 시간적으로 경쟁력을 잃고 말 것이다. 그리고 호당 사육두수도 현재의 30두에서 70두정도로 규모화 될 전망이며, 낙농 선진국수준의 규모화가 될 전망이다.

다. 사육호수

(1) 현재 : 1997년 9월말 현재 젖소사육농가는 18,000호가 채 못되는 것으로 통계 보고되었다. 이는 '96년말 21,000호보다 약 15%인 3,000여호가 줄어든 농가수이다. 이를 하루 단위로 분석해 본다면 약 11농가/1일씩 廢業 내지는 轉業하고 있는 실정이다.

(2) 전망 : IMF시대에서 그 무엇을 전망해 보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굳이 젖소 사육호수에 대하여 전망해 본다면 2000년에는¹8,000~10,000농가 범위에서 構造調整이 되리라 본다.
최소한 專業農 이상만이 살아 남으리라 본다.

라. 유제품 자립도

(1) 현재 :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모든 유제품의 자립도는 불과 70%에 불과하다. 나머지 30%는 수입유제품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써 자립 비율을 끌어올리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2) 전망 : 위에서도 언급한 바와같이 자립도를 최대한으로 높여야 하겠으나 100%까지 올리기에는 우리나라 낙농여건으로는 어려우리라 보지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면 2000년 전망수치인 73%는 무난히 달성되리라 본다.

그리고, 우리 낙농가들부터 수입분유로부터 환원된 환원우유 및 유제품(요구르트, 각종 과일 우유, 커피우유 등)보다는 白色市乳를 즐겨 마셔야 하겠다. 이 길만이 우리 스스로가 살고 우리나라 낙농업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길임을 다시한번 깨달아야 하겠다.

마.酪農振興法

우리 낙농가들의 오랜 숙원이던 낙농진흥법이 어려운 산고끝에 '97년 7월에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물론 반대하는 농가 및 단체들도 많았다. 하지만 꼭 실현해야만 할 일이었기에 많은 농가 및 단체에서는 환영해 마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낙농 진흥을 위한 指導業務가 삭제된 채 통과된 점은 낙농인으로써 여간 아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즉, 절름발이 낙농진흥법이 되고 만 느낌이 자꾸들어 낙농진흥을 위한 낙진법인지, 점유, 검사를 위한 낙진법인지 의구심이 든다.

진정한 낙농진흥을 위한酪振法이 되기 위하여는 낙농전반에 걸친 指導, 教育 등을 담당할 指導 및 研究業務部署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앞으로 전개될 낙농진흥법에 대하여 간단히 소개하여 여러농가들의 도움이 되고자 한다.

- (1) 1997년 7월 : 낙농진흥법 국회통과
- (2) 1997년 8월 : 법률 제 5349호로 대통령령 공포
- (3) 1997년 11월 : 낙농진흥회 설립위원회 발족
- (4) 1998년 상반기 : 동 시행령 제정
- (5) 1998년 하반기 : 동 시행규칙 제정
- (6) 1999년 1월 1일 : 시행

※ 주요 업무내용

- 1) 集乳一元化
- 2) 檢査公營化
- 3) 契約生産制(쿼터제) 導入
- 4) 그외 필요한 업무

위 4개 주요업무는 누가봐도 낙농산업에서 낙농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한 업무로 이의를 제

기할 사람이 없으리라 판단되나, 마지막 4)의 그의 필요한 업무에 토탈 지도업무가 추가되어, 良質의 原乳를 어떻게 많이 생산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지도, 교육업무가 수행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젖소 산유능력검정사업을 통한 사양관리 지도는 물론 이를 토대로 우군의 생산능력을 높일 수 있는 경쟁력 있는 농가가 되기위한 지도가 꼭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젖소 산유능력 검정사업이 일관성이 결여된 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때, 이 또한 낙농진흥회에서 종합적인 지도사업으로 추진하여야 하겠다.

산유능력 검정사업이 낙농진흥회로의 일원화가 바람직한 이유의 하나로, 낙농진흥회의 검사내용과 산유능력 검정성적간에 차이가 발생했을 때 검정농가에서 불만이 야기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낙농진흥회와 검정기관간에 다소의 마찰이 발생할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지도업무가 빠진 酪農振興會는 있을 수 없다. 즉, 낙농의 “振興”을 위해 일할 부서가 빠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름을 酪農 集乳檢査所라 하여야 옳지 않을까?

이제는 이러한 측면에서도 우리 낙농가 및 관련인들은 한(大, 一)목소리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하겠다.

바. 生存戰略

1) 飼育規模 : 위의 사육두수에서 언급했듯

이 다두화된 낙농으로 규모화 될 것으로 보인다. 즉, 총 사육두수가 70두 이상 될 예상이며, 搾乳牛 또한 35두 내외로 말 그대로 家族勞動 中心의 낙농 및 舍, 企業으로의 변환이 예상된다. 그리고, 納乳量도 최소 1,000kg/1일 이상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良質의 原乳를 생산하도록 노력하여 收取單價를 높게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즉, 양질의 원유를 많이 생산하는 길만이 살아남을 수 있음을 다시한번 강조한다.

2) 양질의 원유란?

우리가 말하는 “良質의 原乳”를 가끔씩 논하는데 과연 양질의 원유란 무엇을 말하는가?

한마디로 《細菌數와 體細胞數가 적으며, 固形分含量이 높은 우유》라고 말하고 싶다. 그렇다면 위와같은 우유를 생산하기위한 필요충분 조건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 세균수가 적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하여는 다음 사항들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착유 전·후 乳頭沈漬를 꼭 실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착유 전·후 침지를 통하여 세균수는 물론 乳房炎을 많이 잡았다는 어느 한목장(구학목장, 대표 : 전덕중 사장)의 말로도 그 필요성을 입증하고있다. 이는 세균수를 줄이는 효과외에도 유방염 예방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

☞ 체세포수가 적은 우유는 인위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우나 “체세포”의 개념을 알면 체세포

수를 줄일 수 있으리라 본다.

“체세포”는 98~99%의 白血球와 1~2%의 상피세포가 죽은 상태를 우리는 체세포라 한다.

그러면, 백혈구는 왜 생기는가?

백혈구는 젖소가 염증, 세균감염, 상처발생 등으로 침입세균과의 전쟁을 위하여 아군(백혈구)이 급조됨에 따라 많아지며, 병원균과의 전쟁을 통하여 죽은 백혈구 시체를 체세포라 한다.

그러면, 여기서 체세포에 기인하는 영향요인들에 대하여 알아보자.

어린소 < 늙은소

비유초기 > 비유중기이후

아침 > 저녁

과착유에 의한 스트레스

기타 외부의 스트레스 등을 꼽을 수 있겠다.

☞ 고품분함량이 높은 우유는 良質의 粗飼料를 많이 급여했을때 생산된다. 농후사료위주의 사양관리 체제하에서는 기대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일이겠으나, 소는 草食動物임을 감안 할때 조사료위주의 사양관리만이 소의 健康, 代謝性 疾病 및 繁殖에서도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으리라 본다.

특히, 송아지의 육성은 조사료위주의 사양관리가 이상적임을 감안할 때 더욱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自給粗飼料 확보 : IMF시대 즉, 高換率

시대에서는 특히 자급조사료를 누가, 어떻게, 많이 확보하느냐가 낙농의 성패를 좌우할 예상이다.

이제는 돈이 있어도 마음대로 농후사료는 물론 조사료를 구입할 수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았다. 그리고,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밖에 없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

따라서, 앞으로 옥수수 엔실리지는 酪農 必需品이 되었으며, 볏짚을 비롯한 모든 자급조사료를 확보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낙농을 계속해서 하느냐, 못하느냐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 젖소개량(乳牛의 改良)

젖소뿐아니라 가축의 개량은 혈통을 확립(血統登錄)하고, 體型審査(外貌, 線形審査)를 받아 長·短點을 파악하며, 產乳能力 檢定事業에 참여하여 개체는 물론 우군의 정확한 능력을 파악함으로써 이루어지며, 이들을 토대로 計劃交配를 실시함으로써 완벽한 개량을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모두가 정확한 「記錄」속에서만 가능함을 전제조건으로 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들에 대한 方法 및 長點 등에 대하여 각각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1) 血統登錄 : 가축에 있어서 혈통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여기서 새삼스럽게 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改良의 基本인 血統登

錄에 대하여 다시한번 그 중요성을 논하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우리의 祖上들이 얼마나 현명한 위인들이었는가를 생각해 한다.

近親에 의한 피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근친간의 결혼을 못하게 법으로 정하여 놓은 것만 보아도 핏줄(血統)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다. 家畜에서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농가를 부양하고 있는 젖소의 혈통을 기록해놓지 않으므로써 이름도, 성도 모르는 고아로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로인한 피해를 살펴보면 다음의 경우들을 들 수 있다.

- ① 産乳量 : 交配에서 1代近親(아버지 × 딸 또는 어머니 × 아들 등)이 되었을 때의 近親係數는 25%가 된다. 근친계수 1%의 피해는 1乳期에 약40kg의 乳量減少 효과가 있다. 그렇다면, 1대근친이 되었을 경우 1유기에 약1,000kg의 유량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뒤로 새고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를 목장에 직접 대입하여보면, 어느목장의 경우 모든 소가 모두 1대근친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40두의 搾乳牛를 보유한 경우라면 그 피해는 다음과 같다.

40두 × 1,000kg = 40,000kg이 된다.

이를 돈으로 환산해보면 40,000kg × 500원(원유대) = 20,000,000원의 손실을 아무도 모르게 보고있는 것이다. 실로 놀랄 일이다.

- ② 外貌形質 : 강한 근친에 의한 피해는 위의 산유량에서 보아 알드시 실로 크지만,

외모에서의 피해 또한 놀라지 않을 수 없다. 즉, 盲目(소경), 短蹄(통발굽), 無尾(꼬리없음) 및 矮小(잘 자라지 않음) 등 외형적인 피해 또한 실로 말할 수 없다. 이들역시 소위 아까바네병과 증상이 비슷하여 아까바네병으로 오인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많은 부분이 강한 1대근친에 의한 피해임을 알아야 하겠다. 이러한 피해역시 정확한 「記錄」에 의해 줄일 수 있음을 강조한다.

2) 審査 : 젖소의 심사에는 일반적인 外貌審査와 線形審査의 두 종류가 있다. 외모심사는 품평회나 기타 우열을 가리기위한 심사를 일컬으며, 선형심사는 젖소의 일정한 부분(15개 부위)에 대한 모양을 1~50이란 수치로 나타내는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하는 심사로써 외모심사보다는 보다 과학적이며, 정확한 개량자료로 이용할 수 있는 심사수단이다.

이러한 선형심사를 통하여 젖소 개체의 신체적인 장·단점이 확실하게 파악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最適種牡牛의 선정으로 후대축의 개량은 한층 빨라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3) 産乳能力檢定 : 젖소의 개량에서 꽃이랄 수 있는 산유능력 검정사업은 목장의 개체는 물론 牛群의 정확한 산유능력을 알아보는 수단이다.

이렇게 정확한 능력 판단아래 能力優秀牛는 選拔하여 목장의 후보축 생산을 위한 母畜으로 활용하고, 低能力牛는 도태하여 고능력우 집단으

로의 전환을 도모하여 單位生産性を 높임으로써 競爭力을 확보하는 중요수단임을 말한다.

검정의 방법으로는 자가검정과 입회검정의 두가지 방법이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입회검정에 비중치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입회검정을 수행하기 위하여는 많은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경제적 부담이 뒤따른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2001년까지 우리나라 착유우의 40% 수준까지 검정비율을 높이고자 '97년부터 ₩45,000원/두/년의 검정 보조금을 검정참여우에 한하여 지급하고 있다.

다시말하면, 검정비율을 酪農先進國 수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희망찬 야심을 보인, 즉 젖소 改良史에 큰 획을 그은 한 해였다. 하지만, 이후 매년 보조금을 10%씩 감액하여 지급하고, 10년후인 2006년에는 보조금을 완전히 없앤, 受益者 부담을 원칙으로 검정사업을 완전 농가 자부담만으로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아. 特別提案

1) 낙농산업은 단순히 낙농가들의 생계수단 일 수는 없다.

위에서도 여러번 언급했듯이 良質의 原乳를 생산하여 많은 사람들로 부터 不信받고, 外面당한 사실을 되새겨 우리의 사람들로 만들어야 하겠다.

2) 牛乳는 단순한 嗜好食品이 아닌 食糧이다.

성인은 말할것도 없이 우리의 2세에게 없어서는 안될 重要食糧임을 우리는 다같이 다시한

번 느끼고 그 當爲性도 인정받도록 노력하자.

3) 「White Day」를 제정하자.

즉, “흰우유 마시는 날”을 만들어 그날 하루 만이라도 이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은 우유 1컵 씩 마셔보자. 우리 酪農史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오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옛날 처어칠 수상의 말을 다시한번 되새기자.

“2세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우유를 마시게 하는 일이다”

5) 2Q(Quality Quantity)운동에 다같이 참여합시다.

우리농가가 원유를 생산함에 있어 양질(Quality)의 원유를 보다 많이(Quantity) 생산하도록 다같이 노력하자.

6) 끝으로 정부에 건의한다.

가축의 개량사업은 어느 개인이나 농가들만의 힘과 돈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입안에서부터 자금자원까지 많은 지원이 뒤따를때만이 가능하며, 농가들이 살 길임을 인식하여 주시기 바란다. ■

